

齒科醫師와 辯護士. 그 어느하나도 아무나 아무렇게나 얻어지는 것은 너무도 아니다.

그러나 여기 社會에서 最上의 尊敬을 받는 두가지 資格을 獲得한 會員이 曹基沆齒科醫師兼辯護士이다. 그것도 學校라는곳은 발도 드러보지못한 그야말로 無學의 才士이다. 18歲 때인 1927年 當時만해도 온 父母의 羨望의 的인 面書試驗에 合格하여 온 洞理에서 몰려닥친 賀客의 餞送을 받으며 勤勞했으나 큰 期待를 가질수 없는 職業임을 看破, 하루만에 辭表를 냈다.

將來性이 있다고 믿어진 곳이 齒科醫院書生, 그래서 「木村齒科」(日人)에 書生으로 자리를 옮겼다(當時는 看護員이 없었고 書生이라고하여 半看護員및 雜일을 보았다.) 그러나 日人齒科醫師가 10年이나 年上인 韓國人 技工士에게하는 目不忍見의 下待를 目見하고 衝擊을 받은 나머지 나도 齒科醫師가 되어야겠다는 굳은 決心을 했다 그러나 木村院長은 冊을 빌려주지 않았다.

韓國人患者가 日本人齒科에 가려던 通譯이 必要했는데 道廳衛生課長의 夫人의 通譯을 맡게 된 것이 因緣이 되어 衛生課長의 好意로 醫書를 마음껏 빌려 보았다. 東亞日報 光州支局長을 短刀直入의으로 尋訪 處地를 說明하고 餘暇가 많은 新聞代金 收金社員이 됐다. 光州支局長은 「目標가 뚜렷하게 設定되어있는 青年」으로 認定을 하는것 같았다. 드디어 機會는 왔다. 1935年 朝鮮總督部에서 施行하는 朝鮮齒科 醫師試驗에 合格한 것이다.

基礎科目은 解剖, 生理, 藥理, 實技科目은 技工(補綴包含)口腔外科, 齒術 등으로 記憶된다 待望의 齒科醫師生活이 忠南禮山에서부터 始作되었다.

1940年頃에는 서울 團成社 近處에서 開業을 하고있었는데 光州에 있을 때 光州學生事件에 連留者여서 數없이 連行된적이 있었고 그後 政治人과의 接觸이 많아 警察에서 귀찮게 해서(要視察人)法律工夫를 할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또 피나는 法律工夫가 始作된것이다.

終日 患者를 보고 밤에는 總督部 圖書館에서(現 國立圖書館)法律工夫에 온 情熱을 쏟았다.

8·15解放을 前後해서 4,5次나 辯護士試驗에 應試했으나 落榜의 慘狀을 마시기를 거듭했다.

그러나 드디어 이제는 辯護士로서 社會生活의 一大轉換期가 온 것이다. 1948年 10月 朝鮮辯護士施行令에 依한 辯護士試驗의 關門을 通過한 것이다.

現在는 辯護士業에만 從事하고 있지만 1970년까지 齒科醫院을 開設하고 있었다. 故鄉인 全南和順에서는 아직도 敎訓의인 標本人物로 傳來되고 있단다. 「曹基沆이를 보아라 學校에는 다니지 않았어도 醫師에다 辯護士가 되지 않았느냐」는 式으로 말이다.

同僚齒科醫師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保存療法을 重點의으로 해야 할것으로 알려 醫權伸張은 반드시 和睦團結에서만이 온다는것을 銘心해 달라는 것이었다. 大商協會顧問, 中央選舉委員等을 歷任하시고 現在는 辯護士業을 하면서 東亞日報社 法律顧問職을 맡고있다.

曹基沆 1909年 4月 1日 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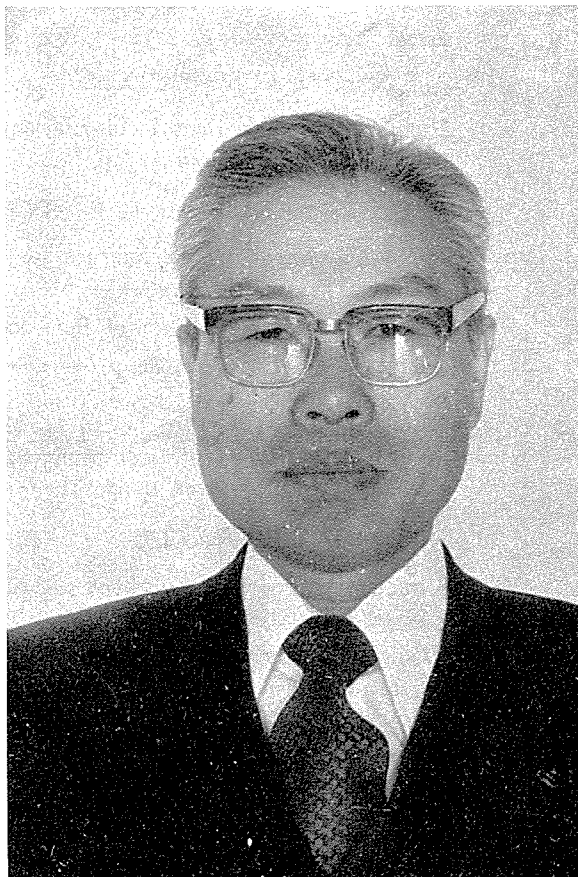
本籍: 全南 和順郡 春陽面 富谷里 264

住所: 서울 特別市 城東區 九宜洞 246-43

<(法律事務所) 45-9563 (自)41-3803>

家族關係: 夫人 裴乙順女史(60歲)와의 사이에 3男 2女로서 全部大學을 卒業했고 3男(曹世鉉)만이 서울大 醫大 3年在學中, (趣味: 바둑과 등산)

曹基沆 先生님



KUM KANG
Dental Lab.

移轉盛業中입니다

(21) 0673 (21) 0095



금강치과기공소

대표 조동환

서울·종로구종로5가 231-9

대원빌딩 302호

이규명 치과의원 옆